

‘부르키니 착용 금지법’에 찬성? 반대?

소속

1학년 _ 반 _ 번

이름

● 다음 사례 중 두 가지를 고르고, 그 사례 속 주인공의 입장에서 ‘부르키니 착용 금지 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해 보자.

•1. 나는 신실한 무슬림이다. 나는 프랑스인이지만 신의 뜻에 따라 성숙한 이슬람 여성의 상징인 히잡,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왔다. 아름다운 해변에서 수영을 하려고 부르키니를 입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막으며 부르키니를 벗으라고 한다. 무슨 일인거지? 왜 부르키니를 벗으라고 하는 걸까? 경찰은 지금 당장 벗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 이란의 20대 여성	•2. 나는 이슬람교의 율법에 맞게 손 발 끝과 얼굴만 노출하면서도 몸에 달라붙지 않는 부르키니를 디자인했다. 무슬림 이외에도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화상 피해자·노인과 같이 신체 노출을 꺼리거나, 피부암 환자 등 피부 보호를 위해 자외선을 차단해야 하는 사람들도 부르키니를 사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부르키니 안에 폭탄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금지하려고 한다. - 오스트레일리아 패션디자이너
•3. 나는 부르키니는 부르카의 해변 버전이라고 생각한다. 전신을 옷으로 가리고 눈도 망사천으로 덮여있는 부르카는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사회의 악습이다. 해변에서조차 여성의 몸을 가리는 부르키니는 히잡, 부르카와 마찬가지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일 뿐이다. - 프랑스의 가족아동여성부 장관	•4. 나는 누구나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슬림 여성들이 스스로 입기를 결정한 옷을 못 입게 하는 것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다. 부르키니는 다른 이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슬람인들이 모두 테러리스트나 그들의 동조자인 것은 아니다. - 알제리의 인권 운동가
•5. 나는 IS(이슬람 테러 단체)로부터 학교가 무참히 테러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내 친구들은 총에 맞았고 폭탄에 의해 무너진 건물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깔렸다. IS에게 자비란 없었다. 그들은 도망치는 우리를 향해서도 총을 쏘았다. 이제는 히잡을 입은 사람만 봐도 몸이 떨린다. 부르카를 입고 있는 이들을 보면 난 도망을 갈 것이다. - 벨기에의 10대 남학생	

각 입장의 의견과 그 이유 :

내가 ()번의 입장이라면 ‘부르키니 착용 금지 법안’에 ()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번의 입장이라면 ‘부르키니 착용 금지 법안’에 ()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돈가스를 안 먹는 무슬림 친구를 변호한다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우리 반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수철이가 있다. 한국인인 수철이 아버지는 16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근무를 나가셨다가 그곳에서 수철이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한국에 온 지는 1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곱슬 머리에 그을린 듯한 피부색, 크고 진하게 쌍꺼풀진 눈, 오뎅한 코, 서툰 한국말. 누가 봐도 수철이는 우리와 달라 보인다.

수철이 어머니는 머리에 스카프를 늘 쓰고 다니시는 것 같다.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에도 지난번 부모 참여 수업 때에도 머리 전체를 덮은 스카프를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이 신기해서 쳐다본 우리에게 쉬는 시간, 수철이 어머니는 그 스카프가 이슬람 여성이 쓰는 ‘히잡’이라고 알려주셨다. 우리는 ‘히잡히잡’하며 웃었다. 우리끼리 하는 소리였는데 수철이 표정이 일그러졌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듯 입술을 움직였는데, 혜성이가 기분이 나쁜지 수철이에게 “뭔데?”라고 말하려는 걸 끌고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놀았다.

오늘은 학교에서 햄버거 만들기 요리 실습을 했다. 우리는 햄버거를 다 만들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수철이는 먹지 않았다. 옆에 있는 해미가 먹어보라고 햄버거를 권했고 수철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기분이 상한 해미는 “넌 안 먹는 게 왜 이렇게 많냐?”하고 비아냥거렸다. 그것을 본 재석이는 햄버거를 수철이 입 앞에까지 갖다 대며 먹으라고 했고 수철이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찡그리며 화장실로 뛰쳐 나갔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우리는 돈가스를 만들고 싶다고 환호했지만 수철이는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다. 알고 보니 수철이는 돈가스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급식 먹을 때에 짜장면이 나와도 먹지 않고 햄이 들어간 볶음밥도 먹지 않았다. 수철이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한다.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왜 안먹는 거지?

그러다 문제가 발생했다. 점심시간에 급식을 배식하는 수현이가 왼손으로 돈가스를 집어 수철이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수철이가 피하다 뒤에 서 있는 재범이 급식판과 부딪혀 다 쏟아진 것이다. 재범이는 화를 내며 너희 나라로 가버리라고 했고, 수철이도 화가 났는지 여기가 내 나라라며 재범이를 밀쳤다. 재범이도 수철이를 밀쳤고 수철이의 급식판도 엎어져 음식이 모두 었질러지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수철이를 변호하는 글을 써 본다면?

(수철이의 행동과 그 이유, 수철이가 느꼈을 감정, 주변 친구들의 잘못된 행동과 그 이유, 잘못된 행동에 대한 평가)